

종합·해설

여권발 물갈이론... 민주 텃밭 호남은?

‘기득권 배제’ 공천팬 상당수 영향 지역정치권 촉각 곤두

한나라당 공천 개혁 폭풍의 진로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 폭과 강도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기득권 지역인 광주·전남지역 공천 전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지분 절반이 사실상 시민사회노동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총선 공천에서 강도 높은 공천 혁신을 통한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 대표 연설에서 공천 개혁과 관련 “저를 비롯해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쇄신작업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공천제도 역시 어떠한 기득권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혁명적인 공천 물갈이가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이날 공개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공천 준비 관련 검토의견’문건에서는 공천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제안됐다.

또한, 상향식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 마련, 완전국민경선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에서는 당 지주들과 의원 개인의 지지를 격차가

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물갈이’ 기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강력한 공천 개혁 흐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 ‘바람’이 민주통합당의 공천 개혁 ‘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노동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창당한 민주통합당은 정치 개혁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나라당보다 더욱 강력한 공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바로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기득권 지역인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학영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에 대해 “새로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에 대해 “군소정당을 미래의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한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공천 환경에 처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신과 물갈이에 공세에 직면하고 외부적으로는 야권연대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도 없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천 개혁의 흐름이 “쓰나미”로 변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모습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의 대상이 되는 내곡동 사저 문제, 측근·친인척 비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발본색원 의지를 밝히고 사정당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 전대 대폭 늘어난 선거인단 수 변수 당권후보 선거캠프 전략 고심

민주통합당의 1·15 정당대회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일반 선거인단 수가 예상을 크게 웃들면서 당권후보들의 선거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대외원과 당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대폭 늘면서 이전 정당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선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프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각 캠프는 우선 1만2000~1만5000여명 가량의 대외원을 상대로 펼치는 득표전이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언론을 통한 선거 운동에 집중하는 등 고공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즉, 우호적인 지역위원장과 대외원을 많이 확보하면 과거 조직선거가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1인2표제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2순위 표 합중연환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에서는 먼저 우호적 대외원을 확보한 뒤 다른 후보와 2순위 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가능했지만 일반인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현 상황에서는 조직적인 2순위 표 배분이 어려워 합중연환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한 캠프 조직담당자는 2일 “현재 여명 가량인 대외원을 상대로 펼치는 득표전이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언론을 통한 선거 운동에 집중하는 등 고공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즉, 우호적인 지역위원장과 대외원을 많이 확보하면 과거 조직선거가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선 결과가 후보별 조직력보다는 여론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압도적 선두에 있고, 박영선·문성근·박지원·김부겸 후보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직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했던 후보진영에선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선거인단 내부를 분석하는 한편 공략법을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합동연설이나 TV 토론이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후보들이 친노계제론·세대교체론·시민혁명론 등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경선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용섭, 당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3일 당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대로 된 부가증세를 제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의 총선 세법공약 마련을 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이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복지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효과가 미흡한 ‘부가증세안’(3%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 세율’ 적용)이 통과됐다.

박주선, 지식센터 예산 확보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도 광주지식산업센터 예산 69억원(국비 60억원·시비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식산업센터 사업

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 편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의원의 노력으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

광주지식산업센터는 동구 동명동 구 과학관 부지에 총사업비 316억원(국비 90%, 시비 10%)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에 따른 동구 도심 공동화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정숙, 내년 국비 2904억 증액

통합진보당 곽정숙(비례)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요구한 2012년 예산안 총 25개 사업에 2904억원을 증액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광주지역 증액 예산은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처리장 117억1200만원 ▲전남대 전문직업센터 설치지원 45억원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3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억8700만원 ▲장애인 구강검진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원 등 총 196억4900만원이라고 곽 의원은 밝혔다.

양형일, 7일 출판기념회

양형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오는 7일 ‘사람 중심의 정치’라는 출판기념회와 오

플하우스 형식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광주 동구 공동 1-3단지(한미소풍 4거리)에서 연다.



양 예비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치’에 화창시절과 유학 시절, 교수와 총장 시절,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신념, 정치인으로서의 이상을 진솔하게 담았다.

양 후보는 기존의 출판기념회와 사무소 개소식을 식순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중식, 고흥·보성 총선 출마

신중식 전 국회의원은 3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낙후된 보성·고흥 지역이 다시는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투입과 입법 활동을 위해 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섰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의원은 “보성·고흥은 전국 230개 시·군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의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됐다”며 “차별화된 정책과 예산확보 노력으로 이 지역을 전남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이학영 광주서 ‘표몰이’

“총선·대선 승리 이끌 책임자” “인적쇄신만이 국민에 감동”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한명숙 후보와 이학영 후보는 3일 광주를 찾아 지역 표몰이에 나섰다. 당권 주자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80년 5월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선택도 그랬듯이 항상 무한 대통령 선택도 그랬듯이 항상 광주·전남의 선택을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며 “민주당을 통합시키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저를 선

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의원문화재단 당 건설 현장을 방문, 둘러본 뒤 “참여정부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부진해 안타깝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 단일후보인 이학영 후보도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주지역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

낸 이 후보는 “새로운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면 총선·대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며 당내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0% 물갈이를 해달라는 게 현재 민심”이라며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광주·전남지역 현안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유니베라남양알로에복구대리점 북구 우산동 범버우사거리 동진빌딩 301호 건강식품, 화장품 ☎(062)268-7755	화담회관 두암동 566-7번지 광주병원앞 갈비, 김치탕 전문 대표 지연화 ☎(062)263-6622	대구형제막창 백운동 1-5번지(후면시이3차대성시장입구) 소막창, 돼지막창, 돼지갈비, 오돌뼈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2)651-9293	손큰회포차 서구 쌍촌동 1199-7번지 쌍촌시원 산낙지회, 메기탕, 병어조림 (점심메뉴-동태탕) 회 포장 됩니다. 대표 문정매 ☎(010)2809-5673	굿바디허브영향다이어트 중흥동 269-20번지(중흥로와 평화면선입구) 비만관리, 세포영양, 어린이영양간식 6년근 평화홍삼, 체지방무료측정 대표 한명숙 ☎(010)6620-6119	순살파닭(광주2호점) 학동 남광주사거리에서 학문외과옆 배달전문 ☎(062)225-3992	원명원 금남로2가 구동구청 1층 중화요리전문 광주에서 처음 출시한 요리 ☎(062)232-1422
서울표구점 중흥동 북구청에서 밀버우시장중간 동양화액자, 병풍, 족자, 표구전문 대표 윤주영 ☎(062)267-7979	한방대나무속성유황오리 우산동 554-19번지 서방시장 건너 세미올고골목 조기탕, 청국장, 추어탕전문 대표 서유경 ☎(062)522-8883	존슨썬팅 서구 내방동 470-3번지 현대주유소옆 열·차단썬팅,키오디오,후방카메라,메카카검보기 대표 문상기 ☎(062)375-9416	다사랑의료기 학동 750-70번지 삼익세라믹@입구 의료기 전문업체 회장 박동구 ☎(011)607-9026	중국이두마리치킨 용봉동 전대후문에서 해원주유소옆 허름 전매주 국내산 두 마리 16,000원 학교,학원,교회,유치원 단체주문환영 ☎(062)264-9992	목화웨딩 불로동 169-1번지 히딩크호텔입구 웨딩미디어, 스마트,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별돈 백운동 현대@건너목우@상가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 대표 김종필 ☎(062)367-0281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카를린센터뒷편 요리리명가 단체손님예약환영 대표 이명숙 ☎(062)523-5292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 거리 기념품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매매, 무료감정 고급표구, 족자판매점 대표 박종환 ☎(062)232-4784	E안경 광산동 황금주차장 건너편 한안경 가져오시면 세안용으로 보낼해드립니다. 대표 김삼익 ☎(062)223-8943	천지당구장 양림동 기독병원입구 2층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표 임성채 ☎(010)4144-6088	터숫불구이(양림점) 양림동 기독병원옆 서양새마을금고옆 숯불구이, 국밥전문 대표 전인태 ☎(010)7941-2277	와DC스토어 백운동 송촌@입구 생활용품 할인 매장 대표 임병석 ☎(019)462-0408